

협회 제31대 집행부 출범...추가 임원 임명키로 합의

오는 5월 한·일 합동세미나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이 한·일 합동연수회 개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와 함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한·일 합동세미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추진위원장으로 김관홍 부회장(메디칼업저버 발행인)을, 추진위원으로 오경섭 감사(일요저널 발행인)를 추대해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동세미나 개최지는 제247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선정된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리며, 일정은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다.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은 오는 4월 초 예정된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한국전문신문협회 제31대 임원 구성(안)

구분	성명	소속사 및 직위
회장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발행인
명예회장	박두환	원예산업신문 발행인
고문	함용헌	약업신문 발행인
고문	김시중	한국섬유신문 명예회장
고문	유태우	보건신문 발행인
고문	이덕수	틴타임즈 발행인
고문	양영근	가스신문 발행인
상임고문	방재홍	독서신문 발행인
부회장	함정기	정보통신신문 발행인
부회장	김관홍	메디칼업저버 발행인
부회장	정재환	화광신문 발행인
부회장	김종철	한국임업신문 발행인
감사	백용태	국도매일 발행인
감사	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
이사	이군호	식품음료신문 발행인
이사	박연준	의학신문 발행인
이사	강현옥	농촌여성신문 발행인
이사	홍준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이사	방두철	독서신문 대표

*추후 추가 임원 임명 예정.

제249차 정기이사회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는 지난 3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4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전문신문협회 제31대 임원 구성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어 △제60차 정기총회 개최 결과 보고 △한·일 합동세미나 진행상황 △사무국 직원변동 등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도 이뤄졌다.

먼저 김광탁 회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협회 창립 60주년과 함께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과 역량을 살려 협회와 회원사의 발전과 전문신문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광탁 회장 취임인터뷰 6면

이어 본 회의에서는 '한국전문신문협회 제31대 임원 구성(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협회는 지난 제60차 정기총회를 통해

제31대 회장으로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발행인을, 감사에는 백용태 국도매일 발행인과 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을 선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제11조에 의거해 총회에서 위임받은 부회장·이사 등의 집행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협회 사무국에서 자료로 준비한 임원 구성안과 더불어 5~6명의 이사를 추가로 임명키로 합의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는 제31대 부회장과 이사에 대한 위촉장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이후 '제60차 정기총회 개최 결과'와 '한·일 합동세미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협회 사무국은 한·일 합동세미나와 관련해 '전문신문의 미래발전 전략'을 대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소주제(△일본정부와 국민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일본 고령화와 인구 감소문제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중이신문의 구독감소와 격변하는 정보환경에 전문신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는 일본 협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자격 및 절차

가. 가입자격 : 전문신문(인터넷) 발행인·대표이사 또는 발행법인

나. 가입절차 : 입회원서, 발행인 카드, 회원사 카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입회비와 함께 본 협회 사무국에 신청.

다. 회비내역 : 입회비 - 700,000원
월회비 - 90,000원 *연회비로 선납시 5% 할인

라.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9-01-1135-182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신한은행 : 100-003-283205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문의 :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02-334-7251~2

■협회 주요사업

가. 협력업체를 통한 신문 제작, 편집, 인쇄, 발송, 홈페이지 관리 경비 절감

나. 전문신문 육성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다. 전문신문협회보 발행, 배부를 통한 홍보

라. 전문신문편람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

마. 정부공익광고·기업광고 수주 및 회원사 배정

바. 기자증 발급 및 취재편의 지원

사. 정기간행물 납본 대행 - 국립중앙도서관

아. 각종 캠페인 및 광고주/유관단체장과의 좌담회 개최

자. 경영인 세미나, 기자연수교육, 강연회 개최

차. 한국전문신문상 및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카. 정기간행물 신규 및 변경등록 대행

타. 전문신문의 이행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제14회 서울국제가스&수소산업전' 성황리 개막

가스신문

가스신문(발행인 양영근)은 제14회 서울국제가스&수소산업전(GAS KOREA 2024)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GAS KOREA 2024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가스신문이 주관하며, 산업통상부와 환경부 등 18개 단체가 후원했다.

지난 6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스코리아 2024 양영근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커팅식과 전시장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양영근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유일 가스쇼 가스코리아 2024에 동참해 주신 참가기업과 단체 등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스·수소업계의 정보교류는 물론, 새로운 미래비전을 탐구하는 기회이자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 80개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했



며 LNG 및 도시가스, LPG, 고압가스 관련 산업 외에도 가스계량기 등 계측기와 가스배관, 밸브, 안전기기, LPG저장탱크, 가스난방기 등 다양한 가스용품 및 부품, 기자재들이 전시되며, 수소산업과 관련된 업체들도 참가했다.

특히 가스코리아 2024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특별시,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소산업협회 등 기관들을 포함해 한국아이티오, 서울도시가스, 엔트텍 등 주요 가스관련 업체가 참여해 신제품과 신기술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전시회와 함께 10개의 가스 및 수

소관련 컨퍼런스와 세미나도 열렸다.

한편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가스코리아는 국내 유일의 가스·수소분야 전문전시회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국내외 가스·수소산업의 신기술·제품 소개를 통해 국내 관련산업의 상생발전은 물론, 대국민에 홍보의 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차기 전시회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가스코리아 2024는 전시 마지막날에 무료입장으로 가스관련 기업들이 협찬한 100여 점의 경품도 준비해 전시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전시 관람 이외의 또 다른 기쁨을 선사했다.

회원사 개편

새학기 맞아 오피니언 필진 보강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발행인 홍준)이 오피니언 필진을 새롭게 보강해 더 넓고 깊어진 칼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대학신문은 지난 4일부터 새학기를 맞아 새 필진, 새 칼럼으로 독자들을 찾아오고 있다. 이번 필진은 대학재정, 교육행정, 글로벌교육, 외교·통일, 보건·의학, 출판·비즈니스 등 각계 전문가가 새롭게 합류해 다양한 시각과 통찰력 있는 분석, 깊이 있는 사유를 전달한다.

각계 전문가 10명이 새로 합류해 기존 필진 29명과 함께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사회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석해 더욱 깊고 풍성한 지면을 선보인다. 전문가 칼럼에서는 MZ세대가 주목할 만한 콘텐츠와 트렌드 인사이트를 전하는 글을 담아내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논설위원은 '시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기존 필진에 더해 정규 필진으로 새롭게 참여하는 칼럼니스트는 다음과 같다. △김병주(영남대 교수) △송기창(성신대학교총장) △송석원(경희대 교수)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상 가나다순)

기존 필진은 △김갑수(서울교대 교수) △김상철(NHN에듀 부대표) △문형남(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박기수(한양대 에리카 교수) △박명호(동국대 교수) △배상훈(성균관대 교수) △이국현(삼육대 교수) △이준영(상명대 교수) △이찬규(중앙대 행정부총장) △정영란(서울디지털대 교수) △조재희(서강대 교수) △한석수(전 케리스 원장·공주대 정재용



합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황홍규(전 대교협 사무총장·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초빙교수) 등으로 통찰력 있는 글을 이어간다.(이상 가나다순)

'대학통'에서는 △김효석 건국대 기획처 혁신사업단 혁신지원사업센터장 △황의택 한국기술교육대 홍보팀장이 새로운 필진으로 합류했다. △김기석 삼육대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김영아 아주대 인문센터 학생상담소 책임상담원 △박상흠 루터대·영남신학대 교무번호사 △오세원 숭실대 교무처 학사팀장 겸 원격교육지원팀장 △유신열 고려대 부장 △이지욱 홍익대 중앙도서관 열람팀 △정재영 서강대 로울라도서관 정보봉사팀 부장 등 기존 필진이 활동을 이어간다.

전문가 칼럼에 신규 필진으로 △김규석 유웨이 글로벌 매니저 △이은호 한국전자출판학회 부회장 △최부경 한국ESG경영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기존 필진은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김기태의 저작권 토크(TALK TALK))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류진한 계명대 광고홍보학전공 교수(류진한의 크리에이티브 사피엔스)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박성철의 교육법 산책) △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구독경제전략연구소장(전호겸의 혁신경제로 보는 세상) 등으로 연재를 이어간다.

한국대학신문은 "대학정책 정론지로서의 소명과 전문지로서의 역할 확장에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2024년 물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환경타임즈

환경타임즈(발행인 유철)는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제32회 물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를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물 관리 효율화 및 물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열렸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해 진행해 온 물 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는 지난 20년부터 21년 그리고 작년 말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관계자 및 기업들이 힘을 모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 논의 및 기업 간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물 관리 효율화 및 물 산업 활성화' 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해외진출에 경험 있는 국내기업 관계자



들이 참석해 기술 및 현지 적용사례를 설명하고, 또한 국내 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산업협회의 등에서 국내 물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및 2024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각종 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물 관리 우수 지자체와 개인 수여 대상자에 대한 포상식도 개최식에 맞춰 진행된다. 물 관리 최우수 기관은 수원특례시 상

수도사업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합천군 상하수도과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각각 선정됐다.

아울러 환경타임즈는 물과 관련된 일을 20년 넘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 '물관리 달인'을 선정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김현택 하이클로 대표이사, 이광배 온테크 대표이사, 이용순 대전광역시 월평정수사업소, 유재춘 부천시 상하수도지원사업단, 김영수 서울아리수본부 배수과 총 5명이 영예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유튜브 채널, '다큐하루' 선보여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발행인 길경민)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농수축산신문'에서 새로운 콘텐츠 '다큐하루'를 선보인다.

다큐하루는 농수축산 관계자들의 하루를 담은 다큐멘터리 콘텐츠로, 첫 번째 다큐하루 주인공은 전북 익산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이반농장 이휘 대표다.

이대표는 아버지에 이은 2세 한우 농가로 건국대에서 축산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실력자다.

앞으로 다큐하루에서는 농수축산업계에 종사하는 보물같은 인재들의 숨은 이야기를 담아 하나씩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다큐하루 콘텐츠가 농수축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평소 접해보지



ICT접목, 데이터로 한우 키워 연매출 21억 올리는 박사 출신 농부의 하루

못했던 농수축산업계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다큐하루 1편은 지난 7일 농수축산신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됐다.

말레이시아 치과의사 수지침학회 방문

보건신문

보건신문 발행인이자 고려수지침 유태우 회장이 말레이시아에서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을 연구한 치과의사 일행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는 10년 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고려수지침을 보급하고 있는 오리(Or) 수지침사가 가르친 제자들이 고려수지침 학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된 한국 관광 겸 학회 방문이 이



제야 실현됐다"고 기뻐하면서 "수지침 창시자 유태우 회장을 직접 만나게 돼 기쁘다. 부작용없이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고려수지침을 더욱 연구하고 보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협회보 칼럼



책과 식물은 삶의 정수(精髓)를 담는 그릇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는 한국성경식물원이 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한국성경식물원을 가꾸어온 박경선 장로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박경선 장로는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성경 식물 씨앗과 어린 묘목을 한국으로 가져와 직접 재배했다. 더 나아가 식물 속에 녹아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식물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 식물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으며, 성경 식물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생을 바칠 만큼의 열정은 누구에게나 쉽게 생기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박경선 장로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떠오를 질문, 어떤 계기로 인해 식물에 천착하게 됐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유년 시절부터 식물에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거나, 식물과 관련된 애뜻한 추억이 있었다거나 하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다. 나쁜만 아니

라 모두가 마찬가지였으리라.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대답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저는 식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관심도 없었습니다. 원래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태권도·합기도 7단이고, 유도·검도 각각 3단해서 통합 한 20단 정도 됩니다. 단지 예쁘고 아름다워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키우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식물을 키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릇의 본질이 밥과 물 등을 담는 것이듯, 메시지를 품고 있는 식물이 있다면 그 식물의 본질은 담고 있는 내용물이 아닐까? 물론 장인이 정성스럽게 빚은 그릇은 그 자체로도 한 점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 그릇이 밥과 물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릇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경선 장로가 식물을 넘어, 그 속에 있는 메시지에 천착한 이유일 것이다.

책 ‘박경선 장로의 메시지가 있는 성경 식물 이야기’는 아래와 같이 전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고페르 나무’는 임시로 머무는 유숙하다는 메시지가 녹아있고, 엘리야가 쓰러져 있었던 브엘세바 광야의 ‘로렘 나무’는 비침함의 메시지가 녹아 있으며, 유월절 그 밤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우슬초’는 정결과 겸손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아몬드’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영적 파수꾼을 상징하고, 삭개오가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던 여리고 길가의 ‘돌무화과나무’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회복을 상징하며, 굽주림이 있는 이방인의 돼지우리 곁에서 탕자가 먹기를 원하였던 ‘쥐엄 열매’는 궁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 아닐까? 책은 종이, 잉크, 풀, 가름끈 등 단순한 재료로 이루어진 군더더기 없는 물질이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을 채우기 위해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집필 시간이 투입된

다. 책은 지식과 정보는 물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주의 탄생과 역사까지 담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무한대로 깊고 넓어질 수 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을 양서(良書)라고 할 순 없다. 한 책은 값을 매기기 어려울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다른 책은 책값이 아까울 만큼 형편없다는 혹평을 듣기도 하니 말이다.

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올까? 바로 내용물, 즉 메시지다. 표지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책은 책꽂이에선 멋스럽지만, 나의 무엇도 바꿀 수 없다. 모든 변화는 감상하는 눈이 아닌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물 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내며, 책 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더듬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 끊임없이 사유해야 한다. 메시지가 담긴 물질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방재홍 상임고문(독서신문 발행인)

협회, 3월 전문신문 건강걷기 개최

전문신문산우회(회장 양영근)가 ‘전문신문 건강걷기’ 세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일 진행했으며, 한국전문신문협회 박두환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일원역 6번 출구에서 모여 중산고를 시작으로 대모산 정상으로 오르며 체력 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수서역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트래킹하며 격무에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났다.

다음 일정은 4월 6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코스는 경의중앙선 운길산역에서 집결해 북한강변을 산책할 계획이다.

협회 김광탁 회장이 직접 코스를 안내한다.

전문신문 건강걷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02-334-72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이번달 열린 '전문신문인 건강걷기'에 함께한 회원들이 트레킹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회보 칼럼모집

- ◆ 원고내용: 각 산업별 이슈에 맞는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
- ◆ 대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 접수방법: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1964@naver.com
- ◆ 문의: ☎ 02-334-7251~2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비대면진료,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락처 할까?

의학신문

최근 비상진료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된 가운데,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적용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의학신문(발행인 박연준)은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4) 세부 세션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적 합리화 방안-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효율화-' 컨퍼런스를 지난 1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개최했다.

의사를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계·약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3개의 강연과 함께 비대면진료 연락처의 합리적 방안을 위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첫번째 강연을 맡은 김현성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현재와 미래'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도입을 두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전망까지를 아울러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는 '임상사가 바라본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도연 대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현황을 조망하고,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정관 DRx솔루션 대표는 '비대면투약에 대한 고찰' 강연에서 비대면진료에서 필연적으로 활용되는 비대면투약과 관련한 각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미국·일본·중국 등 각국의 의약품 배달 사례를 소개했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원격의료(비대면진료)에 대해 편리한 서비스 정도로만 생각해 왔는데, 생각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를 위한 구성요소가 복잡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일반이나 환자 입장에서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다른 업계 참석자는 "의사들이 현장에서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연구하고,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게 돼 유익했다"면서 "강연에서 언급된 것처럼 비대면진료의 효과성이 충분한 근거가 쌓인 만큼, 법적 이슈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정리될지를 주의깊게 살펴 보면서 비용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인력 통계 기반한 정책 수립돼야

원예산업신문

원예산업신문(발행인 박두환)이 후원하고 한국원예학회가 주최한 '제18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가 지난 2월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5층 그랜드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안동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농촌고용인력증가센터나 공공형계절근로자제도 등 정책 간 유기적 관계 부족과 농업 노동 공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체계 논의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내·외국인을 포함한 농업 고용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대부분 연구가 설문조사에 의존해 불법체류 농업인력의 파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인력 수요 공급 매칭과 정책 수립 및 지역별 품목별 노동수요 특성을 고려한 유

연한 외국인 임금근로자 유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양성범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시행된 농업고용인력법에서 실태조사,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내·외국인을 포함한 농업 고용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해선 농업인력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원예산업신문 장호열 전무는 "농업 인력 관련 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계절·시기별 필요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이에 김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사무관은 "외국인 인력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협의에 걸쳐 반영토록 하겠다"며 "아울러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 구축 및 인력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 국내외 화장품 제도변화 대응전략 공유

주간코스메틱

주간코스메틱(발행인 김영길)은 '2024년 화장품 산업 정책 전망 세미나'를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간코스메틱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심리 위축과 금리 인상,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 화장품 산업을 전망하고 국내외 화장품 법규와 제도·시장 트렌드를 점검하고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2024년 화장품 산업을 전망에 앞서 정부 기관 관계자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담당자가 발표자로 나서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이날 첫 번째 발표 주제인 '2024 화장품 산업 지원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차용민 서기관이 연자로 나서 발표했다. 차용민 서기관은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수출 전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는 '2024 화장품 제도변화와 주요 정책'에 대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민우 사무관이 연자로 나서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2024 주요 화장품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해 화장품법 개정내용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화장품 사용시의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과 향후 시행규칙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는 '미국·중국 화장품 규제동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리이치 24시코리아의 손성민 대표가 소개했다. 손성민 대표는 미국과 중국 화장품시장 동향을 중심으로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전했다. "코로나19에도 양질의 성장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 주춤한 부분이 있었고 최근 수출 회복 신호들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중화권 중심의 다변화, 체질개선이 그 특징이다"라고 분석했다.

네 번째 연자로는 김승기 민텔코리아 부장이 '글로벌 화장품 원료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주제는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한 성분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국내 화장품 유통채널의 동향에 대해서는 더바디샵의 함순식 팀장이 다섯 번째 연자로 나서 발표하였다.

'2024 시판 화장품 유통변화와 대응'에 대해 함 팀장은 "앞으로의 유통채널은 자사몰의 브랜딩과 스토어 마스터의 활성화, 오프라인에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2024년은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상태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 이후 참석한 참여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무 담당자들의 답변을 통해 마케팅 전략 수립은 물론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 거듭났다.



경영책임자의 지속적인 개선·실행 중요

가스신문

가스신문(발행인 양영근)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압가스안전세미나'를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및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첫 순서로 조상현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실 실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조상현 실장은 "외부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와서 다쳤다면 중처벌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페인트, 청소 등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안전·보건 등의 확보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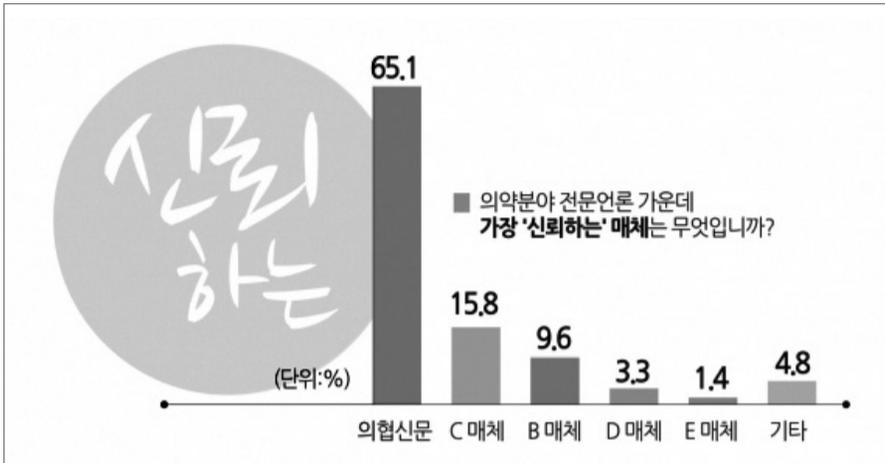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처벌 관련 고압가스 대응 매뉴얼'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영식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전무는 "중처벌 요구사항별 실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경영 방침 설정, 노사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관련 예산 확보 등 3가지"라면서 실천방법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 안전관리책임자 업무수행, 근로자의견 청취 및 보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조완수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센터장은 '독성가스용기 잔가스처리와 안전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안센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오는 4월 시운전에 들어갈 비정상용기 처리시스템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의협신문 창간 57주년 설문조사]

의사가 가장 신뢰하는 전문 매체는?



의대정원 증원 논란 등으로 의료계 뉴스가 연일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혼란의 시기,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혹은 찾아보는 전문언론은 어디일까.

의협신문이 창간 57주년을 맞아 올해도 의약전문지 매체 선호도 및 신뢰도, 제약사 선호도 및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의협신문은 매년 3월 21일 창간일을 기념해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이용, 해당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4년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209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 S 교차분석 방식으로 분석했으며, 표준편차는 1.8, 신뢰도는 Cronbach 알파 값 0.92(92.1%)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는 남성이 81.3%, 여성이 18.7%였다. 봉직의가 전체 응답자의 36.4%, 개원의 29.2%, 교수 28.2% 등으로 전 직역이 고루 참여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9.2%, 40대가 22%, 60대가 23.4%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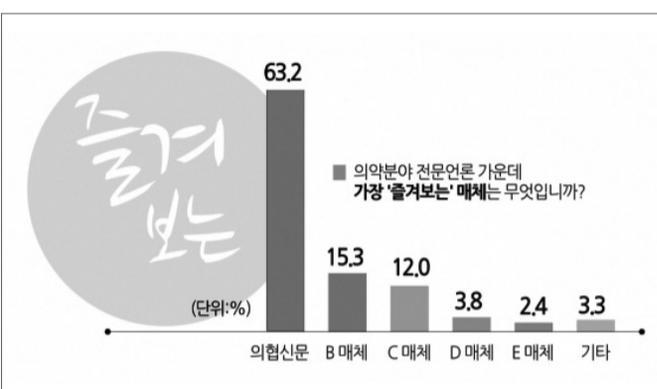
의협신문이 의약전문 매체 선호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타 매체와의 압도적인 격차로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장 즐겨찾는 매체,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꼽았다.

의협신문은 3월 21일 신문 창간기념일에 즈음해, 매년 매체 선호도 및 신뢰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09년 첫 조사 이후 격년 혹은 5주년 간격으로 의사 회원들의 뜻을 물어오다, 2020년부터 매년 3월로 조사 시기를 정례화했다.

올해 설문조사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이뤄졌으며, 설문에는 의사 회원 209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는 봉직의가 36.4%, 개원의 29.2%, 교수 28.2% 등이었다. 통상의 조사에 비해 교수 직군의 참여가 많았는데 최근 의대증원 이슈로 해당 독자층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의사 회원들에 가장 '즐거보는' 의약전문언론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63.2%가 의협신문을 꼽았다. 15.3%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한 B매체, 12%의 지지로 3위를 기록한 C매체와 압도적인 격차다.

4위는 3.8%의 선택을 받은 D매체, 5위는 2.4%의 지지를 얻은 E매체에 돌아갔다. 의협신문을 최상위로 하여, 2~3위 매체가 상위그룹, 4



~5위 매체가 중위그룹에서 경쟁하는 구도로 그 밖의 매체 선호도는 1%에 못 미쳤다.

의협신문은 전 연령, 전 직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꼽혔다. 의협신문을 가장 즐겨찾는 매체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30대 62.5%, 40대 54.3%, 50대 60.7%, 60대 69.4% 등으로 집계됐다. 직역별로는 개원의 응답자 중 73.8%, 봉직의 59.2%, 교수 55.9%가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택했다.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꼽은 의사 회원이 비율은 지난해(61.7%)보다 더 늘었다.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을 매일 방문한다는 열독자의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의사 회원들에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어디인지도 물었는데, 응답자 65.1%가 의협신문을 택했다. 타 매체와 현격한 격차로 선호도와 신뢰도 모두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신뢰도 조사 2위는 15.8%의 지지를 얻은 C매체, 3위는 9.6%의 지지를 받은 B매체가 차지했다. 2, 3위 매체의 경우 선호도와 신뢰도 조사결과가 엇갈리는 결과를 보였는데, B매체의 경우 선호도에서, C매체는 신뢰도에서 강세를 보이며 각각의 조사에서 순위바꿈을 했다.

4위는 3.3%의 선택을 받은 D매체, 5위는 1.4%의 지지를 얻은 E매체에 돌아갔다. 대다수 매체들의 신뢰도 수치가 선호도보다 낮은 특징을 보였는데, 의협신문과 해당 분야에서 강세를 보인 C매체만이 신뢰도에서 더 큰 지지를 받으며 다른 행보를 보였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꼽은 응답자는 30대에서 58.3%, 40대 60.9%, 50대 63.9%, 60대 71.4%로 각각 조사됐다. 직역별로는 개원의 응답자의 73.8%, 봉직의 59.2%, 교수 응답자 중 55.9% 등으로 전 직역에서 고르게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는 "의사 회원들의 압도적인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협신문이 의사 독자층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대내외에 알려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치의신보 100일]

'내 손안의 치의신보' 100일 디지털 시대 안착



치의신보가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고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을 찾아가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100일이 넘었다.

치의신보는 지면 그대로의 모습을 디지털로 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를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매주 화요일 발송하고 있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면을 E-BOOK 형태로 변환 후, 카카오톡 '대한치과의사협회' 채널을 통해 회원 개개인에게 배포하는 뉴스 서비스를 총칭한다.

기존에도 치의신보는 인터넷판 홈페이지에서 'PDF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무게는 100MB(메가바이트)에 달하는 PDF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 후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해 호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신문 열독률 상승, 공보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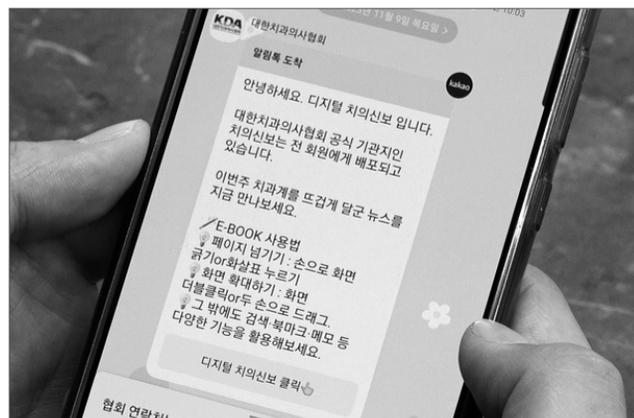
반면 디지털 치의신보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종이 신문에 버금가는 선명도의 신문을 언제 어디서든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은 물론, 2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실제 신문을 읽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이러한 장점으로 신문 열독률 상승을 통한 공보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중이다.

치협과 회원 간 정책·학술적 가교 역할은 물론 회원의 알권리·정보 접근 편리성 증대, 치협의 정체성 홍보 등 치과계가 하나 되는 기회를 보다 많이 창출해 치협 회무 추진 동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일례로 디지털 치의신보 론칭 이전 7100여명에 불과했던 치협 카카오톡 친구 수는 4000여 명이 늘어 현재(19일 기준) 1만1587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 매주 약 2만8000명의 독자들이 디지털 치의신보를 접하고 있는데, 이들이 디지털 치의신보를 읽는 시간을 합하면 2000시간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종이 신문 구독을 디지털 치의신보로 대체하겠다는 요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개원 20년 차인 한 회원은 "스크랩, 모아보기 등 여러 기능들이 유용해 지면 구독을 디지털 치의신보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경영 활성화, 예산 절감 효과

특히 디지털 치의신보는 독립채산제로서 회원들의 회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체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치의신보의 경영 활성화와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기존 치의신보 인터넷판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지면 광고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계 업체 관계자는 "지면 광고를 통해서만 알릴 수 있었던 제품 소개, 세미나 등 소식을 디지털을 통해 더 많이, 신속하게 알릴 수 있어 이전보다 문이 더 늘었다"고 호평했다.

현재 치의신보는 종이 신문과 더불어 PDF 파일로 보관돼 있던 과거 신문을 디지털 치의신보로 순차 변환하는 중이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치과의사 회원, 치과계 업체 관계자에게 배포되는 중이며, 향후 치대생 등 여러 치과계 가족에게도 배포될 계획이다.

앞으로도 디지털 치의신보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한 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종이신문의 경우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정말 살얼음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야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변화를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치협 회원 개별 카카오톡 외에도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치의신보 인터넷판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디지털 치의신보' 메뉴(www.dailydental.co.kr/news/section_list_all.html?sec_no=137)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취임 인터뷰

언제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지난 2월 20일 '제60차 정기총회'를 통해 제31대 회장으로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발행인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30대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제31대 회장 선출'을 실시했다. 자리에 참석한 회원사는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발행인을 제31대 회장

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당시 김광탁 회장은 당선소감으로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한국전문신문협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문언론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선출은 추천을 통해 백용태 국토매일 발행인과 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이사 등 임원 선출은 정관 제11조에 의거해 진행 후 최종 집행부를 꾸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제31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에 임기를 시작한 김광탁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등을 들어봤다.

■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취임 소감과 전문언론에 몸담아 온 본인의 약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운영에 있어 환경이 녹록진 않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회장을 맡아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인생철학입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제31대 회장으로서 협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를 특별히 소개할 정도의 이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언론에 몸담아 온 얘기를 꺼내보자면 1990년대와 2000년 초반에 'TV홈마트'와 '다솜방송 의료건강 26ch 케이블 방송'을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일본국 스카이 퍼펙TV/785ch'을 한 때 설립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이어 2010년~2012년간에 '내외일보 사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내외경제TV 대표이사', '내외뉴스통신 발행인 겸 대표이사'를 맡아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 2017년에 'nbn 시사경제'를 창간해 발행인을 맡고 있습니다.

■ 이제 막 임기가 시작된 만큼 협회를 비롯한 전문신문 발전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 사안은 어떤 것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회장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겁지만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협회를 위해 가장



협회 제31대 김광탁 신임회장이 박두환 전임회장에게 전달받은 협회기를 흔들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재정확충'과 '신규 회원사 확장'이 바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협회가 주축이 되어 세미나 등 행사를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이슈를 세미나 주제로 다루면서 정부와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신규회원사 확대를 통해 회비납부가 협회의 통상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협회 회원가입 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정부와 기업 등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서 회원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세미나 개최 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협회 발전과 위상을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사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신문 운영에 어려움을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세무 및 변호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회 사무국과 고민하겠습니다.

■ 전문신문이 관련 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주목받기 위해서는 협회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신문의 주 독자층은 업계 종사자 인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한국전문신문협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주목 받을만한 이슈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열어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국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주제를 발굴해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협회를 알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협회 차원에서 후원하고 응원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 코로나19를 비롯한 인공지능(AI)의 등장 등으로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문신문 업계에 대해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문신문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로 언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또 AI의 등장으로 사회발전에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새로운 이슈나 사회문제가 등장하면 이에 순응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면 신문의 발행부수가 줄어들고, 광고 수입 역시 줄어들어 회원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언론계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지면 신문 발행만을 고집하면 상황은 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요즘은 전 세대를 아울러 뉴스콘텐츠를 종이로 보지 않고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접근하기 쉬운 모바일을 이용합니다. 이런 뉴스 환경에 발맞춰 인터넷신문을 창간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며, AI까지 활용해서 적응해 나아가야 언론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면 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이나 유튜브로 매체 운영방식을 변경해 잘 적응하고 있는 회원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잘 파악해서 벤치마킹 해야겠지요.

AI의 등장은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뉴스의 생산과 발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인간의 인식문제가 빨리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말에도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는다'고 하였으니 나이 탓을 하지 말고 AI를 배우고 활용해야 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회원사들을 비롯한 전문신문 언론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신문의 발전과 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은 회장인 저를 비롯한 임원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회원사를 위시한 전문언론인 모두가 힘을 합쳐 협회가 추진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의견은 물론 손소리가 마다 않고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 회원사 모두가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대표(사진 오른쪽)와 국가정보연구원 사무총장 장석광 박사가 '내년부터 간첩은 누가 잡나!'라는 주제로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데스크칼럼

'화장품의 날' 제정 기대

보건신문 김혜란 편집국장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의 날' 제정에 적극 나선다. 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화장품의 날 제정 사업이다.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3조5908억원을 기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 제조업자 수는 2018년 2244개에서 2023년 4567개로 늘었으며, 책임판매업자 수도 같은 기간 1만2494개에서 3만1524개로 급증했다.

특히 화장품은 최근 10년 새 수출 유망 산업군으로 우뚝 섰다.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화장품 수출국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85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보건산업진흥원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 등의 악재 속에서도 선전한 수치다. 2024년 화장품 수출은 6.0% 증가한 90억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 화장품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최근 급속도로 커진 산업 규모를 자랑한다. 화장품의 날 제정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다. 보건산업계에는 이미 약의 날, 식품안전의 날, 의료기기의 날이 제정돼 있어 식품의

약품안전처 주최로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산업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서도 화장품의 날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뷰티 글로벌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장품의 날 제정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출 유망 품목으로 급성장한 화장품산업은 최근 들어 그 산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인식도 이에 기반한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무부처에서 화장품산업을 너무 출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화장품산업은 이제 전 세계적인 수요와 함께 보건산업 수출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들어 화장품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있어 조만간 업계 숙원인 '화장품의 날'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쉬움 남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

식품외식경제 육주희 편집이사

지속된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오마카세 레스토랑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미쉐린 가이드 첫 부산 셀렉션과 8번째 서울 셀렉션이 동시에 발간됐다.

2024 에디션에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해양 환경과 오랜 역사 속에서 고유의 미식 문화를 발전시켜 온 부산이 합류된다는 소식에 특히 관심이 높았다. 이번에 가이드에 오른 레스토랑은 3스타를 받은 모수를 비롯해 서울 177곳, 부산 43곳 등 총 220곳이 선정됐다.

이번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 발표를 두고 현장의 반응은 물음표가 가득했다.

먼저 지난해는 '가온'과 '모수' 2곳의 3스타 레스토랑이 선정됐지만, 올해는 모수 한 곳만 3스타를 유지했다. 지난해 가온이 폐업을 했기 때문이다.

모수도 지난 1월말 폐업했다. 모수는 CJ그룹에서 투자한 레스토랑인데 CJ에서 손을 떼면서 영업을 종료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3스타 레스토랑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모수의 안성재 셰프는 잠시 휴식기를 가진 뒤 오는 6월쯤 재오픈하기로 결정하면서 별을 유지했다는 후문이다.

부산의 첫 셀렉션을 두고도 아쉬움의 평가다. 현장에서 만난 미식평론가 박상현 씨는 "부산이 미식의 도시로 선정돼 세계적으로 부산의 음식문화를 알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선정 결과를 지켜봤는데 무척 실망했다"며 "평가원들이 과연 제대로 부산만의 특별한 음식 문화를 알고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 가는 결과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 미식가가 참고하는 미쉐린 가이드 셀렉션은 여전히 그 존재감이 충분하다. 침체된 외식 시장에 새롭게 미쉐린 가이드 리스트에 오른 레스토랑들이 미식 관광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외식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가 쓰레기 패션을 혁신이라 부르지 말자

어패럴뉴스 박선희 편집국장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 정확히 말하면 정말 대단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섞인 반응들이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물류 혁신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몇 천 원짜리 상품들이 끊임없이 도배되는 사이트를 보면 참으로 찝찝하고 복잡한 기분이 든다.

우선 혁신의 결과라고 하기엔 여기저기서 잡음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보다 동종 업체 눈에 걸려든 것은 모조품, 일명 짝퉁 상품들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와 잡음이 잇따르자 우리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플랫폼과 차별 없이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꺼내 든 수단이라는 것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다. 직권 조사가 불가능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이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해 분사 대신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준과 대리인 의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알리와 자울 협약을 맺는다는 발표도 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을 요약하자

면, '짜퉁'과 'AS' 딱 그 지점이다. 그나마도 그게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도 의문이다.

소비자 AS 문제를 왜 정부가 해결하나. 기업이 마땅히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가.

몇 번 입고 버리는 '쓰레기 패션'은 지금 지속가능성을 제일 명제로 설정한 글로벌 산업계와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

자라와 H&M 등 자국 브랜드를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한 미주와 유럽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다.

어패럴뉴스가 해외 소식을 통해 다루었던 미 의회는 쉬인, 테무 등의 관세 회피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800달러 이상 패키지에 대한 '드 미니미스(De Minimis)'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 마련을 지원해온 셔클러 서비스그룹 CEO인 라첼 키비스는 이 법안이 섬유산업의 순환성에 대한 최초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과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득 인간은 자신이 인식한 세계만큼을 산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이 소비자 인식 수준에도 못 미치니, 소비자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신념을 실천하는 소비를 해야겠다.



전공의를 살려야 의료가 산다!

의학신문 안병정 편집주간

공언했던 대로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의과대학에 배분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런 결말에 '2000명 증원은 무리'라며 극렬하게 반대해 온 의료계는 분을 삭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랑곳없다. 한 치의 유두리도 없이 정해 둔 로드맵대로 가겠다는 태세다. 반면 의료계 주변에서는 '과국은 이제부터'라는 극단적인 전망이 높아 의료사태의 새로운 불씨를 키우는 시작인 것 같아 걱정이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의사들의 반발에 따른 의료대란이다. 궁극적으로는 끝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거나 못한다면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이 멈춰지는 등 그 연쇄적인 파장이 상상을 초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학교육 부실과 의료개혁으로 포장될 각종 의료제도와 체계의 변혁 등 우려되는 대목이 한 둘 아니다.

벌써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결행한 지 한 달여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 대학병원이 근근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교수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들도 힘이 소진되었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지자 이제 손을 놓겠다고 한다. 이미 교수협의회에서는 진료축소를 선언하고 나왔다.

정부는 비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비상상황'으로 이 나라 의료체계를 지탱하겠다는 것인가. 물리적인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극단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든 풀어야 한다. 그 해법은 전공의들을 하루빨리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러나 사표를 던진 전공의들이 그냥 돌아 올리는 만무하다. 합당한 명분과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의 전면 폐지,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이 가운데 '의대증원'은 대못을 박아 당장 돌이킬 수 없다면 차선으로 나머지 2개의 제안을 전폭 수용하여 큰 불을 꺼놓고, 향후 의대정원을 축소할 수 있는 기전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키로 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으면 한다.

지금도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말에 진정성이 있고, 절박함을 인식하고 있다면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와 노력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그래야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 또한 전공의가 복귀해야 의-정 대화의 장도 만들어 질 것이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당장의 책무로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지금은 '인과관계'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국민의 선택에 달린 국회의 운명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치열한 선거 끝에 국회에 입성할 후보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각 산업별 전문신문이 바라본 제22대 총선 상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정리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내외뉴스통신

한동훈, “세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내외뉴스통신(발행인 김광탁)은 지난 3월 25일 기사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발표한 공약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대부분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하는 시기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 국제신문

김병규 진주를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국제신문(발행인 이한구)은 지난 3월 14일 기사를 통해 김병규 진주를 후보자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현장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진주를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병규 후보가 1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병규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당의 결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진주시민에게 후보를 선택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공천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진주는 예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떨쳐 일어나 끝까지 항거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도시’라면서 ‘역대로 진주에서 국회의원 공천이 잘못되었을 때 무소속 후보를 4번이나 당선시켜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아줬다’며 하순봉, 정필근, 김재천, 최구식(前)의원을 예로 들었다.

김 후보는 특히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1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윤리위 회부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탈당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천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칠지 모르나, 진주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고, 저의 결정이 옳고 의로운 길이었음이 머지않은 장래에 판명되리라 확신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당을 일시적으로 떠나지만 반드시 이겨서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농촌여성신문

‘여성 공천 30%’ 공염불

농촌여성신문(발행인 강현욱)은 지난 3월 15일 기사를 통해 각 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현황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선 지역구 대진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 대부분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모두 ‘여성 대표성’을 강조해 왔지만 당헌·당규로 지정한 여성 의무공천 비중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1대 국회와 비슷하거나 더 적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기준 경선 결과를 포함해 최종 공천 대상으로 확정된 후보들 중 여성 후보는 국민의힘은 전체 239명 중 28명(11%), 민주당은 217명 중 40명(18%)에 그쳤다. 일부 지역구가 남아있긴 하지만 각 당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30%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제3지대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개혁신당은 51명 중 6명(11%), 새로우리래는 13명 중 2명(15%)이 여성 후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 정당들의 여성 후보 비중은 30%를 넘겼다. 녹색정의당은 17명 중 7명(41%)이, 진보당은 82명 중 36명(43%)이 여성이었다.

■ 메디칼업저버

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의사’는 누구

메디칼업저버(발행인 김관홍)는 지난 3월 15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의사 출신 후보자를 소개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회 입성에 도전장을 던진 의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김윤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연립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노린다. 김 교수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에서 100점을 받아 비례대표 후보로 선

정됐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을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의료와 돌봄체계를 개혁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소나무당 인재로 영입되며 “윤석열 정부 퇴진에 앞장 서겠다”는 포부와 함께 총선 출마를 알렸다. 보수로 비춰졌던 최 전 회장이 진보 진형인 소나무당에 입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대의에는 보수와 진보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입당 이유를 밝혔다.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역구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5호 영입 인재 자격으로 서울 강남을 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을 ‘강남 닥터’라 지칭한 강 전 상근부회장은 지역구 출마 이유에 대해 “누구보다 강남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선민 전 심평원장은 지난 6일 조국혁신당 총선 5호 인재로 영입되며, 정계 진출을 알렸다. 정계 진출을 알리기 전까지 국내 최초 산업재해 전문 공공의료기관인 태백병원에서 근무한 김선민 전 심평원장은 조국혁신당과 함께라면 우리나라 보건 의료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 식품외식경제

여야, 소상공인 지원 총선 공약 경쟁

식품외식경제(발행인 박형희)가 지난 3월 4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섰다. 여야 모두 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 중심의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을 위한 수십조 원의 자원 투입을 소상공인 지원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전문 은행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 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예산을 대폭 늘려 이자감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해 난방비 등 지원할 계획이다.

■ 약업신문

與 약사 전원 탈락, 野 4인 확정

약업신문(발행인 함용헌)은 지난 3월 19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각 정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대 총선을 위한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후보 선정이 마무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약사 출신 후보는 전무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4명은 대부분이 협지 출마한다. 비대면 진료 확대 흐름 속 약 배달 허용 가능성과 맞물려 약사 사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지역 약사 A씨는 “지난 국회 땀 여당과 야당 모두 약사 출신 의원이 있어 약사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이번엔 여당에 약사 출신이 한 명도 없어 당혹스럽다”면서 “약사 사회 현안이 가득한 이 시점에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약사 출신은 국민의힘 서정숙,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서영석-전혜숙 의원이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서정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컷오프됐고, 김상희-전혜숙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현역 약사 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22대 국회에 도전하게 된 서영석 후보는 “경제 폭망과 민생 파탄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며 민주주의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이제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앞장서 싸워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 정보통신신문

“R&D인력확보 관련 특별법 제정 나서야”

정보통신신문(발행인 함정기)은 지난 3월 18일 기사를 통해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차기 국회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올해 초 1650개 R&D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투자 확대 △과감한 인력 및 세계 지원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1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기업들은 먼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무역규제가 탄소중립, 디지털 정보와 연계돼 추진되는 복합적 산업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중복합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가칭) 산학연 거대혁신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계 전반의 탄소저감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AI 관련 R&D 촉진과 산업 AI 활용 확대,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③AI 기반 기업혁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 R&D인력 확보·육성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제안했 다음으로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세계 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세계 지원을 촉구했다.

10대 과제 이외에 중소기업에 위한 긴급 현안으로 국회가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많은 중소기업이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중단, 연구원 퇴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R&D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경 지원을 호소했다.

■ 중소기업뉴스

771만 표심 ‘中企 중심’ 정당에 힘신는다

중소기업뉴스(발행인 김기문)는 지난 3월 11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온 공약에 대해 짚어봤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22대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중소기업 정책 및 입법 공약 경쟁이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중소기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4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저성장·양극화·인구구조 변화·디지털 전환 등 예전과 확연히 다른 복합적인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할 입법과 정책을 선택해야 할 중요한 선거”라며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도 정당별 中企 공약이 너무 부실하고 급조된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 때와 현 22대 총선은 중소기업 관련 정당 정책이 있어 양·질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약개발분부를 출범시켰고, 지난달 22일엔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총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지원 방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및 경영부담 완화, 매출 증대 등을 골자로 소상공인 특화 공약을 내놨다.

이번 22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각 정당이 중점을 둔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공약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양했다. 21대 국회에선 中企 출신 비례대표도 핵심이었다. 정당별로 여의도에 입성해 中企 관련 입법 과제 해결을 맡을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대거 중용한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중소기업 관련 입법과 정책 중심의 정책선거가 치러지길 희망하고 있다. 아울

러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기대 중이다.

■ 축산신문

먹거리 생산기반 안정화... 농촌경제 활력을

축산신문(발행인 이상호)은 지난 3월 20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축산분야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농축산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농촌에 지역경제 활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 및 ICT 기반 가축사양관리 강화로 축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친환경축산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조기 구축, 무인 축사 등 미래형 축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고물가시대를 맞아 농축산물 가격안정 실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을 메인 주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물가안정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의 세부 계획을 세웠다.

■ 코리아슈핑가제트

“국민의힘 정책자문 역할 충실할 것”

코리아슈핑가제트(발행인 이우근)는 지난 3월 21일 기사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의 도전기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쉬운 내용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후보 등록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에서 정책 개발 임무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선장 출신의 김인현 교수는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에 35번째 국민 추천 인제로 영입된 뒤 범해양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해양수산물류조선업계는 집권 여당의 김 교수 영입을 크게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해양수산 전문가가 직능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결과는 큰 아쉬움과 허탈감을 남겼다. 국민의미래는 지난 18일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35명을 발표하면서 김 교수를 당선권과는 거리가 먼 30번째에 배정했다. 해양수산계는 30번의 순위는 해양수산 전문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실천적 역할을 발휘할 위치가 아니라고 조언했고 김 교수도 업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음 순위 후보자에게 양보했다.

한 달간의 짧지만 치열했던 도전은 마무리한 김 교수는 “당초 영입 취지 대로 국민의힘 정책 분야에 주력해 해양수산물류조선업계의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 TV서울

‘아리송 선거법’ 신경쓰이네

TV서울(발행인 김용숙)은 지난 3월 24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0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선거운동 방식과 금지 사항을 촘촘히 규정한 공직선거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방심하면 사소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해 경쟁 후보로부터 공격받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기간 전 가장 골치가 아픈 제한 규정으로 꼽는 것은 마이크 등 확성기 사용 금지 규정이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 전 확성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돼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방유세를 다니면서도 대중 앞에서 목이 쉬어가며 마이크 없이 육성 발언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보 이름과 기호를 적은 피켓 등 ‘표지물’ 규정도 까다롭다. 대표적인 표지물인 피켓을 활용할 경우 후보의 신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목걸이로 피켓을 걸거나, 발등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피켓을 몸에 붙인다고 한다.

최근엔 판다 ‘푸바오’ 탈과 복장을 한 예비후보에 대해 선관위가 표지물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 한국건설신문

‘강동구’ 고품격 주거환경 최선 다할 터

한국건설신문(발행인 양기방)은 지난 3월 11일 기사를 통해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후보와의 만남은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동의 가족으로 지낸 지난 10여년 동안 강동을 지역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박원순 시정 10년, 민주당 국회의원 12년으로 강동의 날개는 잔인하게 꺾였다.

그동안 뉴타운이 해제되고, 재개발·재건축이 막히면서 강동발전이 20년, 30년 뒤쳐졌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 국회의원 12년의 책임을 묻고 심판하는 선거다.

또 이번 선거는 강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중앙정부, 서울시, 강동구가 모두 국민의힘이다.

여기에 ‘여당 국회의원 이재영’만 있다면, 강동발전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다.

저 이재영은 재개발·재건축, GTX-D라인 유치, 9호선 연장, 5호선 직결화 사업 등을 정부에 확실하게 요구하고, 서울시장에게 한밤중에도 전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다.

당선된다면 강동을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주거환경 도시, 동부수도권의 교통허브로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 도시,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도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바꿔 그레이트 강동을 열 것이다.

충분히 준비돼 있다. 강동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한국교육신문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시키는 제도 개선·입법에 노력

한국교육신문(발행인 여난실)은 지난 3월 25일 기사를 통해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진갑(전 한국교총 회장) 후보와의 만남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 5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국민인재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이어졌고, 2월에 부산진갑 후보로 확정됐다. 뒷말이 많았다. 약속을 저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정 후보는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22대 국회 원내에 학교 현장의 어려움, 교원의 애로를 전달할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겪으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했다.

교권 5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를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없어 정쟁으로 흐르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보냈던 뼈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난과 오해가 있다면 말보다는 진정성있는 의정활동으로 진심을 보여주겠다는 그를 20일 부산에서 만났다.

■ 한국대학신문

교육 분야선 ‘지역균형발전·돌봄’ 집중

한국대학신문(발행인 홍준)은 지난 3월 25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의 교육 분야 10대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앞서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출생과 기후위기 해결, 지방시대가 화두로 떠오른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돌봄 지원, 대학 서열화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0대 공약으로 △소득·주거 등 전 생애 기본적인 삶 보장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처·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의료·보건 교육 강화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쟁 위기 해소와 남북 관계 완화 △대화와 타협의 정치 회복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 △츰츰한 돌봄·양육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 안전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적인 지역 발전 △교통·주거 격차 해소 △청년 행복 △어르신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녹색생활 등을 내세웠다.



| 현장·단독 |

“국세청 신뢰도 높을수록, 탈세발각 높을수록 납세순응도 높아진다”

우리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과거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면 일반 국민들의 조세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도시에 거주하는 만 25~64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본이무이기 때문에 전부 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36.3%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조사에서 64.8%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또한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65.8%로 증가했다.

국민 납세의식은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지인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납세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납세의식은 낮아지고, 자신이 낸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느낄수록 납세의식은 높아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했는데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행위도 강화된다는 것이 확인됐고,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또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도 납세순응행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처벌 강도의 강화는 내면의 납세의식은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시키고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조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다른 사람보다 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면 납세의식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자산소득 내에서도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납세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세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면 일반 국민들의 조세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조세 행정적 측면에서 납세의 편의성과 국세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국세당국의 전자세정 발전은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청의 신뢰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따라서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청의 신뢰성을 국가의 신뢰성으로 더 넓게 해석하면 조세정책이 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납세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납세의식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높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납세의식은 개인의 내재적 성향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요인의 변화로 단시간에 납세의식의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오종현 실장은 “조세 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세제도와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세청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국세신문(3월 8일) 이예름 기자

도축장 구조조정 10년...현장에서는?

포화된 도축업계를 구제하고자 도축업계가 자구노력으로 시행한 도축장 구조조정이 10년을 도래하면서, 새 판도가 그려지고 있다.

구조조정법에 따라 전국의 17개 도축장이 폐업한 가운데, 대형 패커를 중심으로 4개의 도축장이 새롭게 개장했고 앞으로 서경양돈농협이 경기 북부에 도축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영세도축장이 폐업하고 거대자본을 투입한 대형 도축장이 들어서면서 도축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부활로 영세 노후 도축장들의 구조조정을 도와 산업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도축업계 희생 방안 ‘구조조정’

도축업계는 희생을 위한 최후의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한 끝에 결국 2008년 6월 의원입법으로 도축장구조조정법안 제정을 끌어냈다.

도축장구조조정법은 도축 작업 마릿수에 따라 구조조정자금을 거출해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축업계는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설립했으며 86개소가 협의회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키로 했다. 당시 거출금은 소는 마리당 3000원, 돼지는 300원으로 정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진행해 온 도축업계는 자체 조성액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도축장구조조정법을 근거로 17개 도축장의 폐업을 도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강원 고성, 영월, 원주, 정선, 태백 등 5개소, 경남 거창, 양산, 창원, 함양 등 4개소,

경기 동두천, 수원, 파주 등 3개소, 전북 부안, 임실 등 2개소를 비롯해 경북 예천과 충북 증평, 부산 등 모두 17곳의 도축장이 폐업했다.

경영 개선 유도 목적

도축장구조조정법의 취지는 가동률 저하와 경영악화로 위생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도축장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계기로 도축업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포화상태인 도축업계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한편, 경영개선을 통한 재투자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구조조정이 막 시행되던 당시에는 이를 목표로 도축업계 전체가 힘을 보탤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 도축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경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해 끝이 났다.

구조조정의 효과로 경영개선이나 재투자를 도모하기도 전에 벌써, 신규 도축장 건립의 움직임이 일었기 때문이다.

신규도축장 잇따라 들어서

그동안 신규 도축장의 건립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명분은 ‘구조조정법’이었다.



2009년부터 구조조정법이 시행되면서 도축업계는 구조조정법을 근거로 신규 도축장의 건립을 막아왔지만, 법이 일몰된 가운데 사후 관리기간인 10년마저 도래하면서 더 이상의 명분이 사라졌다.

법이 유효한 가운데서는 신규도축장의 건립이 불가했지만, 법의 일몰과 사후관리기간 도래 이후에는 막을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대형 패커와 대기업 등에서 신규 도축장 건립의 움직임이 일었고 제주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안동봉화축협, 도드람양돈농협 등이 신규 도축장을 건립하면서 71개의 도축장이 운영 중이다.

기사제공: 축산경제신문(3월 8일) 이해진 기자

| 현장·단독 |

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 누가 품을까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찾았다. 지하철 여의도역 5번 출구를 나와 성인 남성 걸음으로 천천히 10여분가량 걷자 보기도 오래돼 페인트가 바랜 한양아파트가 드러났다.

오전 10시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단상가 옆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장을 차려입은 포스코이앤씨 직원들과 에코백을 하나씩 메고 홍보용 팸플릿을 들고 있는 아웃소싱(OS) 직원들이 앞다투어 인사를 건넨다. 아파트 정문으로 이동하자 이번엔 현대건설 직원들이 큰소리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연달아 인사했다. 현장엔 '여의도 1번 재건축'이란 상징성과 함께 '경쟁 구도'가 확연해져 뜨거운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업 시행인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신탁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회의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결정한다. 이번 전체 회의 안건은 △시공사 선정·계약체결 △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 등이다.

지난 1975년 지어진 여의도 한양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기존 588가구 규모 단지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거치면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 주거·업무 복합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단지는 사업성이 매우 좋다. 여의도는 서울에서 미국 뉴욕 맨해튼과 같은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하면서 여의도 한양도 용적률이 600%까지 올라갔다. 아파트 단지가 있는 여의도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풀린 점도 수익성을 크게 높였다.

조합원들은 최근 공사비 폭등에도 분담금이 아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등포구에서 지난 11일 공람 공고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복도식인 A~C동 조합원이 동일 평형을 분담받으면 9131만~1억429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분양 수익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여의도 최초로 '하이퍼엔드' 특화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조합원이 동일 평

형으로 입주하면 분담금이 아닌 환급금 3억6000만원을 받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이사는 지난 14일 직접 여의도 한양아파트 현장을 찾아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윤 대표의 등장이 열위에 있는 수주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보라는 추측을 내놨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설명은 다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윤 대표가 직접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방문해 이곳이 회사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핵심지역임을 재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KB신탁 추경을 반영해 아파트 6000만원, 오피스텔 6208만원의 3.3㎡당 일반분양가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아파트 7500만원, 오피스텔 8500만원과 비교해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일반분양 수입이 발생하면 환급금부터 지급하고 공사비를 받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무엇보다 현대건설 대안설계 시 예상되는 2031년 5월 준공보다 빠른 2030년 8월에 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과의 수주전에서 승리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와 3.3㎡당 798만원이라는 공사비 조건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열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치솟는 공사비를 고려하면 하이엔드 아파트 공사비는 3.3㎡당 900만원 중반은 잡아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는 수익보다 상징성을 바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반응은 예상 밖으로 차분했다. 마침 상가에 위치한 롯데수퍼에 장보러 나온 조합원 박모(여·70대)씨는 "한양은 다 끝났는데 뭐하러 왔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여긴 다른 여의도 아파트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작년 9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로 대결이 성사됐을 때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C공인중개소 대표는 "고령인 집주인들이 많아서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제 살아볼 수나 있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대부분 자식들에게 물려 줄 생각을 하시는 듯 하다"고 전했다. 재건축을 통한 당장 수익이 목적인 외부인 유입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날 만난 70대 조합원 이모씨는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정주영 회장 이미지 때문인지 현대건설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튼튼한 젊은이들은 포스코이앤씨가 낫다는 말도 더러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 건설사가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곳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여의도 일대가 강남에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옛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수주가 결정되면 그 여파가 주변 여타 단지까지 퍼져나가 여의도 내 다른 재건축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양아파트 주민들도 조합적인 정비사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갈라져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을 각각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측이 이미 수익보다 자존심 대결로 상황을 보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이뉴스투데이(3월 21일) 김덕형 기자

수인분당선서도 전동차 3대 고장...“전기장치서 불 난 흔적”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경 수인분당선에서도 전동차 3대에 잇따라 고장이 발생해, 하부에 있는 전기장치 부품이 일부 소손됐다.

경인선에서 전동차 3대의 전기장치에서 불꽃이 튀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경인선에서 문제가 생긴 전동차 제작사는 우진산전. 그런데 수인분당선에서 고장이 난 차량은 현대로템이 생산한 차량이다. 문제가 발생한 차량 부품도 거의 같다.

제작사를 불문하고 경인선·수인분당선 등에서 잇따라 전동차 전기장치에 계통에 문제가 생기자, 일각에선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는 모양새다. 하지만 “선불리 원인을 짚어내기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14일 오후 5시 26분경 K6572호 전동차가 수인분당선 송도역에 도착한 후 고장이 났다. 같은 시각, 수인분당선 인천역에서도 K6574호, K6972호 전동차 2대가 동시에 고장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수인분당선에서 운행하던 전동차 6대가 약 14~18분 가량 지연됐다.

차량 고장이 발생하자, 코레일은 뒤따라 오던 열차들을 각역에 정차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광역차량팀을 보내 현장에서 기술 지원 등 조치를 했다. 고장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은 후속 열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타도록 안내했다.

3대 중 1대는 현장에서 임시 조치를 마치고, 다시 영업 운



행했다. 나머지 2대는 운행을 중지시키고, 차량기지로 입고시켰다.

15일 철도경제신문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수인분당선에서 고장을 일으킨 전동차 하부의 전기장치에서도 일부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 업계 관계자는 “수인분당선과 경인선 전동차에서 문제가 생긴 부품이 전동차 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중 하나로, 모두 비슷한 곳에서 불이 나면서 부품이 일부 소손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14일 오전 12시 41분, 12시 52분에 경인선 도원역과 인천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과전압’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형 전동차에서 불꽃이 튀 이후,

구로-인천 간 경인선에서 점검을 했더니, 도원역·인천역에서 실효전압 측정값이 2만 9600볼트(V)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보통 2만 5000V 내외로 측정되면 전력 품질이 안정적인 것으로 본다. 표준 범위는 최소 1만 9000V에서 최대 2만 7500V 이내다. 이어 “구로-주안 구간에서 가선 전압 최대치가 4만V, 제물포-인천 구간에선 가선 전압 최대치가 5만V를 넘긴 것으로 나왔다”며 “고조파도 높게 측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제시한 전동차 제작설계 사양에선 표준범위를 넘는 전압이 전동차로 공급되더라도 최대 5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경인선의 경우 과전압이 5분 넘게 전동차로 공급된 셈이다. 한밤 중 신형 전동차 3대에 불꽃이 튀 1차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수인분당선에서 발생한 차량 고장도 14일 밤에 발생한 경인선에서 일어난 사고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과전압이 흐르는 이유도 다양한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량이나 전기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이 파악되면, 전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라 말했다.

기사제공: 철도경제신문(3월 15일) 장병국 기자

| 현장·단독 |

‘물류입찰’에 드러난 뉴발란스의 ‘한국진출’ 속내는?

‘뉴발란스가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발란스코리아는 최근 배포한 물류입찰제안서에서 자회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뉴발란스 사업은 판권을 소유한 이랜드그룹이 진행하고 있다.

물류신문의 취재 결과 뉴발란스코리아는 지난 2월 국내 물류기업들에게 물류입찰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에는 “뉴발란스는 이랜드그룹의 판권 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통해 유통에 나설 것이며, 2026년 1월 첫 제품 출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뉴발란스코리아가 자회사 형태의 단독 법인을 통해 국내 유통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분도 일부 해외 직소싱 고려

뉴발란스의 물류입찰제안서에 따르면 물류기업에게 요구하는 업무는 크게 △통관을 포함한 국제물류서비스, △창고 운영, △내륙운송을 포함한 라스트마일 배송이며 계약기간은 최소 3년이다. 특히 창고운영의 경우 자동화 설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운송 과정에서 배송추적 등의 가시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물류입찰제안서를 살펴보면 뉴발란스는 물류기업들에게 밝힌 물동량 추이에 대해 2023년 국내 수입 물량은 약 1,200만 박스이며 이 중 43%가 신발, 39%가 의류, 18%가 액세서리 등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뉴발란스는 신규 설립될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류도 일부 해외 공장으로 이전할 계

획인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에는 현재 판매 중인 품목(주로 의류) 중 약 35%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자회사 지원을 위해 뉴발란스의 직소싱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수입물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2023년 대비 2026년 국제물류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랜드그룹과 협력 관계 이어질까?

뉴발란스와 이랜드그룹은 2008년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양사가 최근 갱신한 판권 계약은 2025년까지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판권을 보유한 이랜드그룹은 뉴발란스만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9,000억 원대의 매출을, 중국 시장에서 2,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그룹은 뉴발란스를 국내 인기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등 마케팅에도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나이키에 이어 2위 브랜드에 등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과 뉴발란스는 판권 계약 연장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계약 연장 당시에도 뉴발란스의 국내 시장 직접 진출설이 나왔으나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바 있다.



뉴발란스의 입찰제안서를 받은 한 물류기업 관계자는 “입찰제안서에 직접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그러나 100% 확정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시장 상황에 따라 현재 유통체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발란스는 현재 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4월 중에 물류기업들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늦어도 오는 5월 중에는 새로운 물류기업을 선정하고 업무 프로세스 준비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나 3분기 중에 수출입 업무를, 2025년 12월에는 3PL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제공: 물류신문(3월 18일) 이경성 기자

베트남, ‘K뷰티’ 인기에 블루오션에서 주력 마켓으로

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지사장 권윤아, Shopee)는 올해 1~2월 쇼피 베트남 내 한국 셀러들의 주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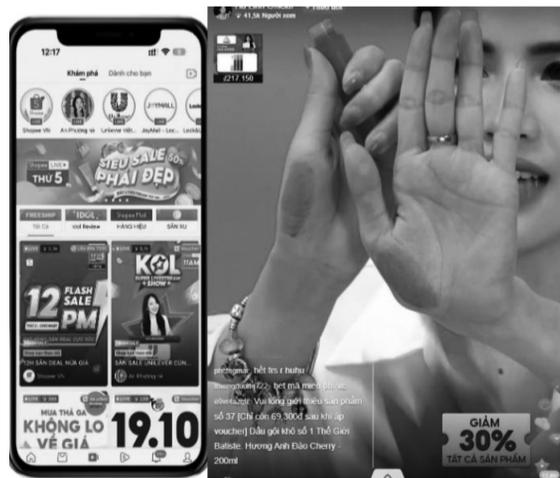
거래액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작년 하반기부터 두각을 보이던 한국 셀러들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베트남이 이제는 주력 마켓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쇼피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베트남 마켓에서 발생한 K제품 주문 건수는 5.2배, 거래액은 4.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쇼피 베트남에 입점한 셀러수는 2배 이상 많아졌다. 이는 기존 쇼피코리아의 메인 타깃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보다 5배 이상 빠른 수준의 성장세다.

베트남 마켓이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는 한국 문화에 우호적인 현지 MZ세대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베트남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한류 콘텐츠를 자주 접해 K제품에 호감을 갖는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베트남 평균 소득이 높아진 가운데 2030 젊은 층이 소비의 주축이 되면서 이들의 K제품 소비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쇼피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 품목이 K뷰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화장법은 자연스럽고 투명한 피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밝고 투명한 피부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한국식 화장법이 이에 부합해 인기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피부타입별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베트남 소비자들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



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이나 메이크업 방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쇼피 베트남에서 가장 큰 판매 비중을 차지한 K제품은 ‘뷰티’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알엑스, 페리페라, 3CE 등 이전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화장품 브랜드는 작년 쇼피 베트남에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토리든과 달바도 작년 쇼피 베트남 내 K뷰티 톱10에 오르며 새롭게 떠오르는 브랜드로 입지를 다졌다. K뷰티의 높은 인기 덕에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K뷰티 리셀러들이 지난해 톱10 셀러 안에 들기도 했다.

품목별로 보면 스킨케어 중에는 ‘코스알엑스’의 ‘굿모닝 젤 클렌저’가 지난해 가장 많이 판매된 K뷰티 제품으로 나타났다.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 달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등도 히트상품 반열에 올랐다. 메이크업 제품은 3CE

의 ‘블러 워터 틴트’, ‘벨벳 립 틴트’ 등이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한편 쇼피는 점점 다양해지는 K제품 성장세에 부응하고자 베트남 마켓에 진출하는 셀러를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마켓에서는 4명 중 1명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관련 기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셀러가 쇼피 제휴 마케팅 네트워크와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면 쇼피 플랫폼을 통해 셀러에게 추가 수수료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홍보하는 기능으로 셀러들의 판매 증대를 이끌고 있다. 특정 상품에 대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때 다수의 고객이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있을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3CE와 토리든은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스트리밍을 진행했고, 비플레인은 쇼피 베트남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3월 3일 메가데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다양한 제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할 수 있는 마케팅 툴로 활용 가능한 만큼 브랜드사뿐 아니라 복수이 브랜드를 취급하는 리셀러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마케팅과 더불어 안전하고 빠른 배송을 위해 물류 서비스도 고도화 중이다. 쇼피는 지난해 말부터 베트남 마켓에 3자 물류 방식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현지 물류 창고에 제품을 두고 평균 1~2일 내에 출고되는 시스템으로 셀러들은 재고 부담을 덜고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현지 고객들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기사제공: 주간신문 CMN(3월 21일) 심재영 기자

뉴스 활용 미디어 스타트업 모집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은 오는 4월 2일까지 '2024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대상사'를 모집한다. 재단은 2016년부터 뉴스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선정사는 총 151억 원의 투자 유치액을 기록했다. 올해는 뉴스 콘텐츠 활용, 뉴스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에 이어 뉴스 저작권 상품 개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공모 자격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선정 직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언론사 사내 벤처는 별도 사업자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재단은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의 개발비를 지원하며 20개사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개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로 한정된 개발비를 올해는 인건비와 장비임차료로 확대했다. 재단은 개발비와 함께 국내 54개 매체 8천 2백만 건의 뉴스빅데이터(빅카인즈) 오픈 API를 제공한다. 또한 스타트업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런치챗 등을 진행해 스타트업 간 정기적인 교류를 돕는다. 개발 완료 후에는

결과보고회(데모데이) 등을 개최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지급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IR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은 재단이 개발한 △오픈소스 플랫폼 '빅카인즈랩', △뉴스데이터를 학습한 언어모델 'KPF-BERT', △뉴스 기반 형태소 분석기 '바른' 등을 자유롭게 활용해 사업 모델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공모 홈페이지(www.2024startupcontest.co.kr) 또는 재단 대표 홈페이지(www.kp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9년차를 맞은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 재단은 △기업 비재무리스크(ESG) 분석 평판관리 서비스 '후즈갯'을 제공하는 <지속가능발전소>, △텍스트와 음성을 영상 콘텐츠로 변환하는 'TTV(Text to Video)'를 제작하는 <웨인힐스브라이언트AI>, △인산·출산·육아 정보 제공 플랫폼 '베이비 빌리'를 운영하는 <빌

리제이비), △이메일 뉴스레터 앱 '헤이버니'의 <트위그람> 등 총 94개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해왔다.

올해 2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빅카인즈 AI' 서비스를 공개한 재단은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 혁신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7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

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는 11위,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7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7월 말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문체부가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언급됐다.

국제언론단체 관계자 한국언론진흥재단 방문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를 방문한 니 베네퀴스타(Nick Benequista) 국제언론지원센터(CIMA) 선임이사 등 국제언론단체 관계자 10명의 예방을 받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 및 국제 언론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CIMA, IREX, Internews, Article 19

등 국제 언론 관련 비영리단체 소속 언론인들이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회의 3일차인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제적인 언론의 위기

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국제언론 단체와 재단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로, 3차 회의는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s)'를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문체부 장관, 출판계와 심도 있는 대화 나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주요 출판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출판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온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도서 저작권 보호 강화 △세종도서 사업 개편 △독서 진흥 △도서 해외수출사업 개편 등에 대

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유인촌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초임 장관 시절부터 문화의 범주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판을 문화의 범주에 넣어 산업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올해 4~5월이면 벌써 내년 예산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오늘 각 단체 대표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출판사가 학술서를 출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도서 불법복제가 만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2008년 장관이 되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분야가 저작권이다. 당시 많은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작권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학술교재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독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관련 출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교수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불법복제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미래 포럼 등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케이-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데, 다음 주자는 케이-북이 될 것"이라며 그 기반이 될 우수도서 발간을 위한 세종 도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케이-북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유인촌 장관은 "오늘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석하지 않아서 아쉽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며 케이-북 수출과 관련해 "최소 내년까지는 공공기관인 출진원이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로 인해 출판계 현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회원사 인사

불교신문

불교신문 사장 오심스님 임명

불교신문(발행인 진우스님)을 발행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은 불교신문 사장으로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오심스님을 임명했다.



임명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오심스님에게 지난 21일 수여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심스님은 불교신문 주간을 역임하고 중앙종회 다산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종단 소임 경험이 풍부한 점을 고려해 불교신문 사장으로 임명했다. 불교신문 대내외적 위상에 맞게 소임을 수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포교 전법, 종단 화합에 기여하고, 종도들에게 불교를 홍보하는 일을 충실히 하라"고 당부했다.

신임 불교신문 사장 오심스님은 "발행인 총무원장 스님을 잘 모시고, 전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단 주요 정책사업을 교계는 물론 대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회원사 동정

병원신문

KHC 2024 4월 개막

병원신문(발행인 윤동섭)을 발행하는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헬스케어 대전환 시대, 우리의 미래를 세계에 묻다'를 대주제로 The 15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4(이하 KHC 2024)를 개최한다.

KHC 2024에서는 새로운 의료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알아보고 급변하는 미래의료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향후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장도 마련한다.

행사 첫째 날인 4월 11일 9시에는 '디지털치료기기 제도권 진입,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Healthcare Industry & Insight(HII) 세션이 열린다.

둘째 날인 4월 12일에는 '아시아 선도 병원들에서 배우는 혁신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가 열린다.

그외 이틀에 걸쳐 16개 분과발표도 준비돼 있다. 또한 '2024 병원의료산업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카페테리아 운영 시작

세무사신문(발행인 구재이)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회관을 방문하는 회원 및 내방객을 위해 회관 1층에 카페테리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

그간 회관을 방문한 회원과 내방객을 위한 별도 휴게 및 대기 공간이 없어 불편했으나 로비와 연동된 카페를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회관 1층을 개방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회관을 방문한 회원과 내방객들에게 제대로 쉴 공간을 제공하지 못해 안타까웠다"면서 "공간의 혁신을 통해 회원 및 내방객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사회관 1층에 마련된 카페테리아에 입점한 업체는 '오페라빈'이다. 카페테리아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영혁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02-521-9451

한국건설신문

제5회 스마트건설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신문(발행인 양기방)은 오는 4월 15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제5회 스마트건설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세션은 △BIM for Construction Process (시공 활용) △BIM for 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 △BIM for Asset Management (자산관리) 등 총 3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은 "BIM기술은 교량·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과 건축물의 설계뿐 아니라 시공과정과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담고 있는 디지털 정

보를 대상 목적물의 생애주기 동안 갱신하면서 사물인터넷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과 연계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가상 환경을 구현하고, 자산관리 체계의 과학적 운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02-757-1114

한의신문

홍주의 회장, 통일부장관 표창 수상



한의신문 발행인이자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사진 오른쪽)이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제26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진행됐다.

이 밖에도 황금주 민화협 집행위원장, 지모도 유끼교 세계평화여성연합 전북도 회장, 김갑석 통일민주협의회 공동대표, 류인숙 제천YWCA연합회 사무총장, 정재의 남북문화교류협회 홍보위원장, 전해지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장, 정구연 민화협 격월간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조은희 민화협 정책위원, 김송현 민화협 1020 통일공감기자단, 전병화 민화협 1020 통일공감기자단이 등이 표창을 수상했다.

화광신문

UN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한국SGI 본부방문

화광신문(발행인 정재환)을 발행하는 한국SGI 본부에 UN난민기구(이하 UNHCR) 한국대표부가 지난 13일에 방문했다.

이날 페데리코 심식 선임담당관은 전쟁으로 생긴 우크라이나 난민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구호 성금 기탁 등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한국SGI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UNHCR과 참가학회가 협력하고 있는 사안을 언급하며, 난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 계획을 설명했다.

아마이아 레제투아 마르티네즈 담당관은 분쟁지역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른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설명했고, 유혜정 한국대표부 팀장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UNHCR의 활약을 들은 김인수 한국SGI 이사장은 "활동 계획부터 어려움까지 알 수 있었다"며 "한국SGI가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기독교신문 직원 모집

기독교신문(발행인 진문일)이 취재 및 광고분야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모집부문 : 편집국 기자 / 기획 및 광고국
- * 모집인원 : 0명(경력자 우대)
- * 지원자격 :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 * 접 수 : cap8885@naver.com
- * 전형절차 : 1차 서류면접→2차 면접
- * 문 의 : 02-2295-8881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한국전문신문협회 임원사

이 컷은 본 협회 회원사임을 나타내는 표시

회장·발행인 김광탁	명예회장·편집인 박두환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함정기 김관홍 정재환 김종철	상임고문 방재홍	
이 사 이근호 박연준 강현욱 홍 준 방두철	감 사 백용태 오경섭	
	고 문 함용현 유태우 이덕수 양영근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34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4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34년 전통 인쇄 기술력



차별화된 시스템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 362-1199 / 영업부 02) 362-6677 / 전산실 02) 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6-67 (온수동)
Tel. 02) 2684-3377

2024년 2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4.02.01.~2024.02.29.)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서울 다50803	부동산과 시사한국	(주)공중보건복지방송
서울 다50802	미라클타임즈	미코히타(주)
서울 다50801	동서일보	동서일보사
인천 다06148	집합건물 타임즈	(주)삼우통상
대전 다01338	(주)유선애드플랜	(주)유선애드플랜
강원 다01246	치약뉴스	치약뉴스(주)
충북 다01287	더코리아플러스 커뮤니케이션	더코리아플러스 커뮤니케이션사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2022서울조정2094·2095·2096 정정·반론·손배청구

독지가의 기부 동기가 잘못 기재된 보도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보도와 관련, 사회공헌 보도에서는 기부자의 입장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50대 독지가가 한 대학교에 전 재산 30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부처를 결정하는데에는 해당 대학교 출신인 지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던 중 부동산 임대수익이 장학금으로 쓰이길 위해 기부를 결정하였을 뿐 해당 대학교 출신 지인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해당 대학교 측이 언론에 임의 배포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에서 1,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대학교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보도를 하였음을 강조하며,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할 의사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사회공헌 보도에서 기부자의 입장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는 후 현재 신청인과 기부처 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합의 해제가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간호사신문

2023 간호통계연보

간호사신문(발행인 탁영란)을 발행하는 대한간호협회가 근거기반 간호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록한 '2023 간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서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넓혀 기존 3개 부문(장기요양기관, 보건교사, 유아교육시설)에서 8개 부문(장기요양기관, 보건교사, 유아교육시설, 구급대원, 혈액관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관리자, 치매센터)의 활동간호사를 조사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통계적 동향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성별, 연령별 등의 인구사회학적 지표를 추가해 간호사 수급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포괄적으로 제공했다. 기존 OECD 지표를 재구성해 국가 간 간호사 근로환경 수준과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통계연보는 △면허 및 자격 현황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보건의료기관 활동 조산사 △간호교육 △간호사 면허 취득 및 취업 현황 △국제 간호통계 등 7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별로 세부 통계자료를 표로 수록했다. 부록으로 보건의료기관 현황, 비 의료기관 현황, 간호교육기관 학사·석사·박사 현황을 실었다.



한국교육신문

새내기 선생님들을 위한 교직생활 안내서

한국교육신문(발행인 여난실)을 발행하는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신규 임용 교사의 학교생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새내기 선생님들을 위한 교직생활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첫 발령을 받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제작에 참여한 안내서는 초임 교사의 호봉 재확정 방법, 각종 수당, 특별휴가 및 휴직의 종류, 신규교사의 이전 비 청구 방법 등 복무 관련 내용과 유튜브 활동 시 주의사항, '민식이법', 아동학대사안처리 등 교사로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안 등을 담았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선생님의 월급은? △농치기 쉬운 선생님의 휴가·휴직제도 △신규발령 선생님도 이 전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부캐 시대. 선생님 유튜브라면 농치지 마세요! △스쿨존 '민식이법' 주의하세요! △아동학대 사안처리 △담임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꿀팁 백서 △선생님! 교총하세요! 등으로 구성됐다.

안내서는 지난 2월 중 시도별로 진행된 신규임용 교사 연수 시 배부되거나 시도교총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2024년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기념회

한의신문(발행인 홍주희)을 발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소아청소년위원회에서 '2024년도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기념회'를 지난 23일 서울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소청위 및 한의사 작가 가족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 '2024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공모전'에서 선정된 △하이브리드 이과생(최규희 서초 하이킴한의원장) △하나도 안 무서워(글: 정혜인 경희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그림: 이승지) 간행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작품들은 소청위가 지난해 10·11월에 걸쳐 한의협 홈페이지 및 전 회원 대상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접수된 작품 중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대중성(진숙·흥미 유발) △독창성(참신·차별성) △완성도(글 구성 및 흐름) △디자인(그림, 사진 등 디자인 요소) 등을 주요 기준으로 평가·선정한 것으로, 한의협이 운영하는 도서출판 KMD를 통해 출판됐다.

'하이브리드 이과생'은 15년차 한의사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최규희 원장이 '최굴굴'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인스타툰



(Instatoon)'으로 연재한 '하이브리드 이과생'을 카툰 에세이 형식으로 출간한 진로 가이드다.

한의약 정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사과정 2년 차인 정혜인 연구원이 쓴 '하나도 안 무서워'는 어린이들이 자칫 무서워할 수 있는 한의원 진료 도구를 바다생물로 캐릭터화해 한의원을 친숙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그림책이다.

한편 이번 소아청소년 한의약 서적은 각각 1000부씩 발행되며, 인터넷 및 시중 서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4월 창간기념일을 축하합니다

4월 1일(2019년) 헬스컨슈머

4월21일(1986년) 병원신문

4월 6일(1990년) 농축유통신문

4월28일(2010년) 식품저널

4월17일(2017년) 대한복지문화신문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장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 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